현불 논단

숨지 말고 강해지자



송마나
작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혼란'
근래 호흡기 전염병 극성 부려
코로나 바이러스 동물서 유래돼
열악한 환경서 집단 사육해왔던
인간 탐욕에 의해 기인한 문제
이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
환자 대한 혐오 · 차별 도움 안돼
독화살 독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삶이란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인간은 가슴 가득 공기를 들여 마시고 밖으로 길게 뱉어내는 호흡을 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얼굴 가운데 우뚝 선 코는 어떤 매개물도 거치지 않고 외부와 바로 통한다. 호흡은 인간과 우주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생명선이다.

그런데 근래에 마스크 없이는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 때문이다. 우리는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이고 긴급재난문자를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불안이 증폭되어 간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80~20nm의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 하기야 바이러스가 오죽 강력하면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CORONA)'란 이름을 얻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2002년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각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속출했다. 특히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로 맹위를 떨쳐나가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모두 동물에게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병원체다. 박쥐, 사향고양이, 낙타 등에서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숙주를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옮긴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상황은 예견되었는지도 모른다.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아왔던 동물들이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개체수가 감소하고, 인간들이 동물들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집단으로 사육하면서 바이러스는 그 안에서 똬리를 틀며 계속 변이를 일으켰을 것이다. 동물과 인간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탓에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호흡기를 공략하여,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글로벌한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사투가 조만간에 끝나리라고 확신하지만 이번 전염병이 마지막이 아니리라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다. 부처님이 〈아함경〉에서 독화살의 비유를 설법하셨듯이, 화살을 쏜 사람에 대한 정보와 화살의 종류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당장 화살 맞은 자의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하여 목숨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누구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우리는 시대적 존재이며 사랑의 존재다. 사회적 재난을 외면하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다.

이웃과 나는 우주적인 공기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 이웃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면 그것이 곧 내 삶마저도 바꿀 것이다. 우리는 이 재난 속으로 숨지 말고 강해져야 한다. 강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그들 역시 가족과 격리되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국과 의료진의 처방을 따라줘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대구로 달려가 분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자원 봉사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아야겠다.

제주도에 진달래꽃이 피었다고 한다. 우리 속히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꽃놀이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자.

社 說

코로나19 재난, 성찰의 시간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 단체의 캠페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의 '멈추며 돌아보기' 캠페인이다. '멈추며 돌아보기' 캠페인은 2주간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자기 돌아보기 △현재 돌아보기 △상황 돌아보기 △지구와 기후의 미래를 돌아보기 △생명을 돌아보기 △넓어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고요한 시간을 갖기 등의 개인 점검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다.

불교환경연대 외에도 불교계에서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 멘토 혜민 스님은 최근 '코끼리' 명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의 심리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의 마가 스님도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마음마스크' 21일 정진을 시작했다. 이 정진은 보배경 독송과 함께 모든 존재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수행으로 오픈채팅방 '마음마스크19' 등을 통해 스님이 직접 신행상담을 해준다고 한다.

사실 한국사회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정신적으로 많이 침잠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차분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항상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 치중했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잡아보자. 성찰은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온라인 신행 생태계 구축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신행활동이 불교계 안팎에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다. 온라인 법회와 기도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종교활동이자 신행생활로 신선함을 주기도 하지만 기존 신행생활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유튜브 생중계를 비롯하여 SNS를 활용한 다양한 온라인 신행활동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불교계 최초로 신행활동의 온라인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조역할에 머물렀던 온라인 신행이 2~3주간 이어지고 오프라인 신행활동보다 중요하게 떠오르며 그동안 특정시간과 공간에 모여야 하는 일반적인 신행활동에 대한 일종의 화두까지 주고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러한 화두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이유다. 언제 어디서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온라인 신행 확산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다양한 개발과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스님들부터 불교 IT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적극적인 IT기술 활용을 통해 사찰 신행과 재정에 두루 도움이 되는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불교페스티벌이 온라인 상에서 펼쳐져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오프라인 강연 중심에서 온라인 강연회와 소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상에서의 신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미디어 변화로 시작된 불교 전법 포교의 새로운 장은 이제 신행생활까지 온라인과 미디어 결합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사태의 새로운 화두는 '불교IT'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현대적 '일상 언어'로 설법하라

〈잡아함경〉 45권 '구담미경'에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런 이야기가 있다. 그 비극의 주인공은 키사고타미 비구니이다. 출가 전에 외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과부였는데,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고 말았다. 여인은 슬픔에 젖어 며칠을 눈물로 보냈다.

부처님이 여인의 사연을 듣고 위로하기 위하여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부처님은 말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도 죽은 아들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인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서야 여인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니 고통이 반으로 줄었고,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기독교의 성경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다'는 이와 비슷한 일화가 나온다. 여인의 외아들이 죽은 똑같은 사실인데 부처님과 예수님의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여인아, 울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마.",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였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실이 각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모양도 다르고 가치 평가도 다르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마음은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정관념(相)이 형성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본다. 그것이 내가 만들어 낸 세계이고 우주이다. 태평양 원주민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도 천당도 극락도 없다.

〈모든 번뇌의 경(맛지마니까야)〉에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는 올바른 생각을 하면 괴로움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가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제를 냉철하게 관찰하여 고통의 실상(實相)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그릇되게 인식한 허상(객진번뇌)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아인슈타인은 "종교적 진리(교리)가 이치에 맞아야 하고, 과학적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밖에 없다"고 하였다.

부처님은 '전법선언'에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이치에 맞고 의미를 갖추어 설법하라"고 하였다. 법사는 설법의 주제와 내용이 논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하도록 설해야 한다.

언어문자는 인간의 약속된 부호이다.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수단인 언어문자가 중심이다. 인간의 사유도 언어문자를 통해서 한다. 불교의 교리를 청법 대중에게 이해시키려면 불교의 전문용어를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고, 어법에 맞는 쉬운 일상언어를 구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는 복잡한 말과 비논리적인 말을 심리적으로 거부한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1일차 (5월 20일 수) | 2일차 (5월 21일 목) | 3일차 (5월 22일 금)
마음치유와 수행 |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3월 28일(토) ~ 5월 30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